



# 익스트림 프라이빗 프랙티스

## 유 비 호

《Extreme Private Practice》에서 유비호는 일상공간인 길거리와 옥상에서 일상탈출 매뉴얼이 들어있는 공을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날려보낸다. 매뉴얼에는 일상의 탈출을 감행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행위들이 적혀있다. 누군가는 땅에 떨어진 공을 줍고 매뉴얼대로 일상의 탈출을 감행했는지 모른다. “제가 생각하는 영화적 언어는 퍼포머가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배가 호수의 물살을 가로지르며 지나갈 때 주위에 파장이 일 듯이 퍼포머의 행위가 파장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거죠.” 그의 작업에서 작가는 제도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소박한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담긴 공을 전파하는 미디어가 된다. 바로 이러한 행위가 개인이 유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미시적 저항의 형태이며, 제도화된 사회시스템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상작업이 단순히 퍼포먼스의 기록을 담아내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촬영을 통해 장면을 구성하는 영화의 대표적인 어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결국 그가 말하는 영화적 언어는 다양한 표현 언어를 시간적으로 배치, 대치, 조합, 융합의 과정을 통해 작가의 주관적 관념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구성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 개인 혹은 작은 집단의 ‘삶과 꿈’ 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권위적인 사회, 제도를 균열 내고 해체하며, 자율적인 세계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상황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구축해가는 자율적 참여자의 감성 혹은 사고의 알고리즘을 조정적, 상황적 과정으로 연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영화적 요소를 집중해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삶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설화화 상징요소를 가지고 미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Extreme Private Practice 0(bat)》 퍼포먼스 2010

《Extreme Private Practice 1(bat)》 퍼포먼스 24분 13초 2010

《Extreme Private Practice 2(golf)》 퍼포먼스 13분 36초 2010

작가는 일상의 탈출 매뉴얼이 들어있는 공을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날리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일상에서 예술적 실천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퍼포먼스를 영상에 담았다.

**유비호 Ryu Biho**는 1970년 군산에서 출생했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영상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했다. 4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서울독립영화제, 오프엔프리영화제,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에 작품을 출품한 바 있다.